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임기추[†]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년 1월 7일 접수, 2016년 2월 22일 수정, 2016년 2월 24일 채택)

A Study on Development of Improvements to Collaborative Energy Saving Projects with NGO

Ki Choo, Lim[†]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Received 7 January 2016, Revised 22 February 2016, Accepted 24 February 2016)

요 약

본고에서는 성과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기반하여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시민연대의 협력사업 선정 및 평가배점 관련 조정이 요청된다. 둘째, 협력사업의 시민참여 주체 선정 관련 시민참여 주체 선정의 다양화, 시민단체와 시민참여 주체의 네트워크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업계획단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수단의 목표 부합성 증진, 사업 예산의 증액 등을 권고하였다. 넷째, 사업집행단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추진절차의 편리성 제고,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최종평가기준 도입 및 사후 서비스관리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참여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가정 에너지절약생활 점검, 가정 내 절약생활 실천 상담, 이외에 금융 및 주택 보수 등 검색, 개인 및 가정의 에너지사용 점검과 스마트폰용 앱 개발 등을 권고하였다.

주요어 :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 개선

Abstract - Solutions to improve collaborative energy-saving programs were developed as follow; First, the scoring for the selection of the programs between KEMCO and the NGOs' Energy Network needs to be adjusted. Second, solutions were proposed to diversify the network selected to participate in programs and to tighten the network among the participating citizens. Third, improving the compatibility with the targets that are set for the program and raising the program budget was proposed. Fourth, ideas to introduce the final evaluation guidelines for the programs by the network,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the program procedures. Fifth, developing a manual to inspect energy-saving measures in households, counseling for at-home energy-saving behaviors, sharing search programs such as financial support and home repair, introducing a program energy-saving APPs.

Key words : energy conservation, NGO, collaborative projects, improvements

1. 서 론

정부는 각종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행사를 개최

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절약 의식고취 및 에너지소비절약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단체 협력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은 1994년부터 여성단체, 교육·연수기관 등을 에너지절약 협력단체로 선정하여 각 단체별로 자

[†]To whom corresponding should be addressed.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Ulsan 44543, Korea
Tel : 052-714-2295 E-mail : kclim@keei.re.kr

올적인 소비절약 홍보, 전시회 개최, 캠페인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비정부분야에서의 소비절약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다 [28].

1994년부터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의 확산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온 것이다. 특히, 2000년에는 정부는 국민 스스로의 에너지절약 분위기 활성화를 통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참여운동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 조례제정운동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4].

이러한 협력사업의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실제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시행되는 프로그램이 에너지절약 사업목적에 어떻게 부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 파악과 개선을 위한 성과 평가나 분석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정부가 시민단체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을 추진한 이래, 이러한 협력사업의 실행을 통해서 실제로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 목표실현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시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11,20].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개발된 평가지표 중심으로 성과분석을 통하여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추진내용

정부에서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주요목적은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의 확산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민참여와 민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절약생활 실천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1) 에너지절약 문화확산을 위한 캠페인, 2) 동·하절기 온도 지키기 캠페인, 3) 고효율제품 활성화, 대기전력 차단 등 활동, 4) 수송 에너지절약 활동, 5) 국민 녹색생활실천 문화확산을 위한 제안, 6)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생활실천 홍보사업 추진 등에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주요사업 목표를 설정

하고 있다 [12].

에너지시민연대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1) 전국 아파트 10만 세대 전기에너지 10% 절약, 2) 전국 동시 ‘에너지의 날’ 행사 참여, 3) 에너지절약 교육 및 가정 에너지진단사 양성, 4) 에너지낭비 실태조사와 캠페인 등에 협력사업의 주요사업 목표를 두고 있다. 상기 주요사업 목표와 관련해서 현재 연간 단위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사업별 별도의 전년대비 전력절감량, CO₂ 감축량, 자전거 마일리지 등과 같은 다양한 하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1].

시민참여와 민간단체 연계 하에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직접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경우와 에너지시민연대를 통한 위탁 협력사업으로 구분된다. 2014년 협력사업으로 민간단체 협력사업 20개 사업에 330백만원,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 40개 사업에 500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12,18,21]. 자료 입수가 가능한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994년 이후 2012년 까지 수행한 총 사업수는 1,675건에 달한다. 이 사업 가운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한 사업과제는 357건, 에너지시민연대에서 2000년 이후 수행한 사업 과제수는 1,318건으로 에너지시민연대의 역할이나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94년 8개 단체로 시작된 이후 2012년까지 연 1,017개 단체가 전체 1,675개 사업에 참여하여 총 13,119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집계되어, 연평균 690백만원에 불과하여 지원액이 매우 적은 실정에 놓여 있다.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방식의 전체 건수를 보면 총 526건의 과제를 분류할 때 한 사업이 보통 3~4가지 사업방식에 걸쳐 수행되기 때문에 2008년 이후 총 1,7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업방식의 우선순위를 보면 강의나 캠프와 같은 교육 사업이 전체 사업의 17.8%(311건)로 비교적 많았으며, 세미나나 심포지엄 등 회의는 16.8%(293건), 선언식이나 출범식 등 행사는 16.4%(286건)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리플렛 및 기타 홍보물 등 홍보물 제작이 15.5%(271건),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가 13.9%(242건), 에너지절약 캠페인 사업이 10.5%(183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대상 유형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성인 남녀가 52.0%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학생이 27.6%, 가정 주부 16.2%, 일반 직장인 3.3% 순이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시민연대가 과거에 추진했던

시민단체 협력사업을 살펴보면, 분석을 위한 자료가 확보된 지난 5년간 지정과제와 제안과제 전체 526개 과제가 수행되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 5년간 수행한 자체 부담금 포함 기준 연도별로 집행된 예산규모의 경우에는 2008년 1,541백만원에서 2012년 732백만원으로 연평균 -17.0% 씩 매년 상당폭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

3.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문제점 도출

3-1.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성과분석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김태운 [5], 김동춘 외 [4], 권혁수 [2] 등 연구사례를 참조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즉,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수립 단계의 적절성(4개 항목), 운영상의 집행성과(6개 항목), 사업성과의 효과성(5개 항목) 등으로 설정하였다 [5,4,2]. 이러한 협력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 회수결과 모집단인 280개 단체 중 70개 단체에서 응답하여 26.0%의 유효 응답율을 보였다 [10].

이러한 결과를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먼저 설문조사에 의한 성과분석 결과 대체로 참여시민들의 에너지절약 실천 개선에 대한 전반적 성과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협력사업의 선정 및 평가항목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수행 단계와 시민참여 주체의 연계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보통 보다 약간 높은 만족 수준이다 [10].

사업추진단계별로 보면, 먼저 사업계획단계에서 다양한 사업수단이 계획서상 목표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결과는 보통 이상의 만족 수준이고, 반면 현재 지원예산이 대체로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업집행단계의 경우 사업추진절차가 보통 수준에 불과하여 미흡하다. 또한 사후 서비스관리 측면에서 참여자나 피교육자 등은 교육 요청이나 홍보물 및 행사물품 등 제공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개별 단체의 사업목표 달성이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

3-2. 사업 선정 및 평가기준 관련 문제점

3-2-1.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 선정 및 평가 현행 에너지관리공단 협력사업의 사업 선정 및 평가

기준을 사업계획단계, 사업집행단계, 사업성과단계로 나누어 보면 각각 55%, 30%, 15% 등의 구조로 적용되고 있다 [14-16].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사항목에 대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대체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근무년수가 10년 이상 및 직원수 5인 미만의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10].

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관리공단 협력사업의 선정 및 평가항목에 대한 조정시 제외항목으로 사업의 독창성과 사업의 실행가능성, 한편 추가항목으로 전년도 참여경험, 사업의 성실성 등이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에너지관리공단 협력사업의 선정 및 평가배점이 적절한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현행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사배점에 대한 불만이 매우 심한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고려가 요청되고 있다 [10].

3-2-2. 에너지시민연대의 사업 선정 및 평가배점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사업 선정 및 평가기준을 보면 사업계획단계, 사업집행단계, 사업성과단계에서 각각 55%, 20%, 25%로 배점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20-23].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선정 및 평가항목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현행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선정 및 평가항목 조정과 관련 장기적으로 사업의 파급효과 및 사업의 성과물 구체화·계량화, 공모지침과 응모사업의 부합성 등의 제의를 희망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창의성 항목의 추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선정 및 평가배점과 관련한 보완 설문조사 결과에서 현행 에너지시민연대의 심사배점에 대한 불만이 매우 심한 상황인 것으로 제기되었다 [10].

3-3. 시민참여 주체 선정 관련 문제점

3-3-1. 시민참여 주체 선정의 개선 제기

시민참여 주체는 자료의 제약상 일반 성인남녀, 주부, 직장인, 학생,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참여 주체 선정방법에 대한 응답을 보면 59.2%의 응답단체에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지인을 통해 9.2%, 학생 동원에 의한 방식으로 3.9%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기타 방식의 경우에는 2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홍보나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협조와

SNS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따라서 시민참여 주체의 다양화 측면에서 가입된 회원, 지인, 학생 동원 이외의 다른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3-3-2. 시민단체와 시민참여 주체의 연계성 부족

사업수행 단체와 시민참여 주체의 연계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5점척도의 전체 평균점수는 보통 보다 약간 높은 만족 수준이다. 문항별 응답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57.9%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33.3%, 8.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긍정적 인식은 수도권 소재 단체에서 확실히 유의한 결과를 타나내고 있는 반면, 지방 소재 단체에서는 일부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이러한 응답결과는 5점척도의 전체 평균점수에서도 보통 보다 약간 높은 만족 수준이어서, 현재 사업수행 단체와 시민참여 주체의 연계협력체계에 대해 보완 여지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연계협력이 잘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네트워크부족이 가장 많고, 이어서 참여주체들의 호응도와 인력부족 및 예산부족 등에 대한 개선 여지가 제기된다.

3-4. 사업계획단계의 문제점

3-4-1. 사업수단의 목표 부합 부족

협력사업의 유형은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40.0% 이상 강의나 캠프 등 교육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회의(세미나, 심포지엄 등), 에너지사용 실태조사, 행사(선언식, 출범식 등), 홍보물 제작(리플렛, 기타 홍보물),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19].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수단이 사업계획서상 전년 대비 전력절감량, CO₂ 감축량, 자전거 마일리지 등 사업목표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교적 상근 직원이 적고 근무년수가 적은 편인 단체에서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통이다’ 또는 ‘그렇지 않다’로 대답한 비율도 각각 25.7%, 7.1%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0]. 이는 전체 평균점수로 보면 보통 이상의 만족 수준이지만, 사업수단의 사업목표에 대한 부합성이 조금 결여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자치모임, 종교 및 교육기관 등을 통한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

가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0]. 이는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잘 조직화되지 않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4-2. 사업 예산의 부족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보면 자료가 확보가 가능한 2008년 이후 사업당 지원액이 약 10백만원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조사에 응답한 단체의 사업당 예산규모에 의하면 5백만원 이하인 경우가 29개 단체에서 48.3%, 5백만원 초과인 경우가 31개 단체에서 51.7% 등 매우 적은 예산으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9].

5점척도의 전체 평균점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현재 협력사업의 지원예산에 대해서 대체로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보완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 결과에서도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계획대비 실행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산 부족시 대응방법으로 ‘부족한대로 진행’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회비로 충당’이라는 대답이 높은 편이었다 [10]. 따라서 예산부족은 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동참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예산 부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

3-5. 사업집행단계의 문제점

3-5-1. 사업추진절차의 불편성 내재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에너지시민연대의 사업추진절차가 모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매년 연초부터 공모사업 공고를 비롯하여 사업계획 심사 및 단체 선정, 중간보고, 최종실적 보고 및 사업결과 평가 등의 절차로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11,12,17,20-22]. 설문조사 결과 5점척도의 전체 평균점수로 보면 보통 수준에 불과한 정도여서,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추진절차의 편리성이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이러한 추진절차에 대해 조사 결과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시민연대의 사업추진절차에 대한 편리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제기된다. 예를 들자면, 사업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제약점을 해결하는데 에너지공급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 등 협조체제 구축에

어로점이 초래되고 있으며, 사업비 지출 관련 회계처리 역량 부족이라든지, 중간 지출사업비 지출에 대한 종료 시점의 정산이행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0].

3-5-2.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최종평가 보완 제기

에너지관리공단은 매년 12월에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대해 평가항목 설정에 의한 100점 기준으로 최종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의 최종평가기준에 의하면 사업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추진방법(40점), 사업대상과 범위 및 사업의 파급효과(참여인원, 홍보실적) 등 파급효과(40점), 사업추진방법의 창의성 등 창의력 등 가점(20점)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11]. 설문조사 결과 5점척도의 전체 평균점수는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현행 에너지관리공단의 최종평가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시민연대에서는 11월 중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과 최종보고 워크숍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20]. 따라서 현행 에너지관리공단 협력사업 결과의 최종평가기준과 같은 평가항목별 최종평가기준의 적용이 요청되고 있다.

3-5-3. 사후 서비스관리 여건 부족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협력사업의 참여자나 피교육자 등 수용가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이번 설문조사 응답업체 중 66.7%에 달하는 단체에서 수용가로부터 사후 서비스 요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로 수용가로부터 사후 서비스 요청내용은 교육 요청이 61.7%에 달하며, 그 다음으로 홍보물 및 행사물품 등의 요청도 상당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와 같은 교육 요청이나 홍보물 및 행사물품 등을 요청한 결과에 대한 5점척도 평균점수는 보통 이상의 만족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결과에서 '보통이다'가 19.3%이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1.8%의 비교적 낮은 비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후 서비스 요청에 도움을 못 주었던 이유는 예산부족이 가장 큰 제약사항으로, 인력부족과 정보부족 문제도 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0].

3-6. 사업성과단계의 문제점

3-6-1.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보완 여지

현재 연간 단위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사업별로 전년대비 전력절감량, CO₂ 감축량, 자전거마일리지 등 다양한 하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1]. 협력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사업목표 성취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5점척도의 전체 평균점수는 보통 이상의 높은 만족 수준이어서, 현재 개별 단체의 사업목표 달성이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목표에 대한 성취여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의견이 62.3%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보통이라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7.6%에 이르고 있어서, 사업목표 달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 '참여주체 수용가의 호응도 부족'과 '사업기간의 한계'에 대한 보완여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

3-6-2. 참여자 만족도 개선 여지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이 에너지절약의 실천 개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점척도의 평균 값이나 응답항목별 분포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체 평균점수도 전반적 성과가 보통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10].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지역에서 매우 뚜렷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협력사업의 참여시민이나 피교육자 등과 같은 참여자 및 수용가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방안으로 실행 프로그램의 다양화 강구 등 개선의 여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개선방안

4-1.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개선목표

앞서 본 바와 같이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에서 파악된 문제점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개선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목표 제시는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생활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시민참여와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협력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단계, 사업집행단계 및 사업성과단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협력사업의 개선목표에 중점을 둔다 [12,21].

먼저 사업계획단계에서 사업 선정 및 평가기준의

조정, 시민참여 네트워크의 활용 강화, 캠페인·조사·교육 등 사업방식의 사업목표에 대한 부합성 제고, 예산 및 재정관리 개선 등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8]. 둘째, 사업추진절차의 개선과 에너지시민연대의 최종평가기준 적용 및 사후 서비스관리 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사업집행단계에서 협력사업 추진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보완한다. 셋째, 사업성과단계에서 사업목표 달성에 대한 제약사항의 보완과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추구 등 협력사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한다.

4-2. 협력사업 개선의 기본방향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비교적 만족스러운 성과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몇가지 현안과제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개선방향은 사업 선정 및 평가기준과 시민참여 주체 선정에 대한 개선책 강구를 비롯하여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단계, 사업집행단계 및 사업성과단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 등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선정 및 평가기준 관련 배점에 대한 불만 정도가 보통 이하 수준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사업단계별 심사항목의 배점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참여 주체의 선정 관련 현재 가입된 회원, 지인, 학생 동원 이외에 참여 주체의 다양화 측면에서 다른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사업수행 단계와 시민참여 주체의 연계협력체계에 대해 네트워크 구성의 보완이 요청된다. 셋째, 사업계획단계에서 사업수단의 사업목표에 대한 부합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자치모임, 종교 및 교육기관 등을 통한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협력사업의 지원예산에 관해 대체로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예산 부족에 대한 개선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청된다.

넷째,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시민연대의 사업추진절차 중 에너지공급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 등 협조체제 구축, 사업비 지출관련 회계처리상 개선, 지출사업비 연중 지출에 대한 사업종료 시점 이전의 조기정산 조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 또 에너지시민연대의 협력사업에 대한 현행 에너지관리공단 협력사업의 최종평가와 같은 평가항목별 최종평가기준의 적용

이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사후 서비스관리 차원의 교육 요청이나 홍보물 및 행사물품 등을 원활히 지원할 있도록 큰 제약사항의 개선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사업목표 달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 참여주체 및 수용가의 호응도 제고와 사업기간의 조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협력사업의 참여시민이나 피교육자 등 참여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방안으로 실행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개선이 강구되어야 한다.

4-3.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개선방안

이와 같은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비교적 만족스러운 성과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몇가지 현안과제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개선방안은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 및 현안과제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실제 개선방안은 관련 정책 및 업무관계자, 시민단체 협력사업 참여자 및 학계 등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시민연대의 협력사업 선정 및 평가배점 관련 조정이 요청된다. 에너지관리공단 협력사업의 선정 및 평가배점에 대해 현행 사업계획단계 55%에서 50%, 사업집행단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사업성과단계에서 15%에서 25%로 상향 조정의 추진이 요청된다 [24]. 이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협력사업의 선정 및 평가항목별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중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항목에 대해 현행 20점에서 15점, 사업집행단계 중 사업의 실행가능성 항목에 대해 현행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24]. 반면 사업성과단계 중 파급효과 항목에 대해 현행 15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선정 및 평가배점에 대한 현행 사업계획단계 55%에서 50%로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사업집행단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이 요청된다. 이에 따른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선정 및 평가항목별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중 공모지침과 응모사업의 부합성여부 항목에 대해 현행 25점에서 20점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반면 사업집행단계 중 수행시 시민참여 정도 항목에 대해 현행 20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이 요청된다.

둘째, 시민참여 주체 선정 관련 시민참여 주체 선정의

다양화와 시민단체와 시민참여 주체의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시민참여 주체 선정의 다양화를 목표로 에너지절약 교육이수자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또한 에너지절약 관련 대학생 중심의 자원봉사자 조직 구성 [27] 등의 방식으로 개선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기후변화 교육 사업에 참여한 바 있는 에너지절약 교육이수자 대상으로 시민참여 주체의 확대를 추진한다. 다음, 개별 시민단체 또는 2개 이상의 소수 시민단체 연대 하의 에너지절약 관련 대학생 중심의 자원봉사자 조직 구성을 추진하여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협력사업 참여주체에 대한 참여과정의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시민단체의 에너지절약 관련 자원봉사자 조직 구성과 관련한 체계적 홈페이지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사업수행 단체와 시민참여 주체의 연계협력 체계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네트워크 강화방안으로 이미 에너지시민연대에서 협력사업의 공모과정에서 유도하여 활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민단체와 주민 기초활동 조직(주민자치회, 관리소, 부녀회 등) [21]의 참여를 비롯하여 에너지·기후변화 전문강사, 각급 학교 관계자, 경찰서·기초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 등 공무원, 지역 에너지다소비기업의 에너지관리자, 에너지절약 전문가 및 일반 시민 등 다각적인 참여 [7,6]를 통한 네트워크 [3] 구축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셋째, 사업계획단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수단의 목표 부합성 증진, 사업 예산의 증액에 관해 제시하였다. 사업수단의 사업목표에 대한 부합성 제고 차원에서 개별 시민단체의 조직 역량 보완 및 에너지절약 실천 관련 소모임의 활성화 [21]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별 시민단체의 조직 역량 보완 관련 개별 시민단체 또는 2개 이상 소수 시민단체 연대 하의 1) 시민단체-경찰서-교육지원청-학교-시군구청-교회-일반 시민 등, 2) 시민단체-일반 시민-전문가 등, 3) 시민단체-여성단체-일반 시민 등과 같이 개별 협력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연대기관을 유연하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동일 사업에 대한 동일 사업비 지원원칙 하에 에너지시민연대의 지원 수준을 에너지관리공단의 현재 지원수준인 최저 12백만원에서 최고 22백만원 범위 [19]로 사업 단위당 예산액에 대한 상향 조정 [9]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향후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차원에서 지원 예산규모의 확보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넷째, 사업집행단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추진절차의 편리성 제고,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최종평가 기준 도입 및 사후 서비스관리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업의 추진내용에 따라 중앙 정부 부처는 물론, 전력·열·가스 등 에너지공급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등과의 협조체계 관련 에너지관리공단 및 에너지시민연대의 본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조성이 요청되고 있다. 회계 관련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 및 회계처리를 위한 업무매뉴얼 [25]을 개발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시민단체의 예산부족 여건을 감안하여 공통적 사업비 지급방식 이외에 개별 사업의 실제 사업 종료시기별 사업비 정산 [21]도 가능하도록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요청된다.

다음,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최종평가기준 도입 관련 현행 에너지관리공단의 최종평가기준 [11]과 같은 사업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추진방법, 사업대상과 범위 및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추진방법의 창의력 등 기준의 적용을 제안할 수 있다.

사후 서비스관리 대응체계 구축 관련 사후 서비스 관리에 대한 상시 대응시스템으로 참여 주체 및 수용가의 요청사항을 비롯해서 협력사업의 추진상황 및 관련 정보제공 등의 메뉴 [25]로 구축하도록 제안한다. 또한 정보부족 대응책으로 대부분 시민단체의 예산부족 실정 하에서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 여건을 감안한 시민단체와 참여시민이나 피교육자 등 수용가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SNS 활용 [26]의 확대를 제안한다.

다섯째, 사업성과단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목표 달성 제고를 위한 사업기간 조정, 참여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먼저, 현재 협력사업의 현행 일괄적인 사업기간 적용방식 [12,21]에서 시민단체의 개별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기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5개월 단위 및 기타 기간 등 유연한 사업기간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참여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차원에서 가정 에너지절약생활 점검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기존 교육 관련 협력사업을 연계 활용한 가정 내 에너지절약생활 실천 상담 프로그램 시행, 가정 대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금융 및 주택 보수 등 검색 프로그램 제공 사업 [1], 개인 및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 점검 프로그램 제공 사업, 스마트폰용 에너지 절약 앱(APPs) 개발 및 제공 [26]사업 등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단계, 사업집행단계 및 사업성과단계의 평가지표 개발과 이를 기초로 성과분석을 시도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분석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의 사업목표 및 예산 배분, 사업집행과정의 중간평가, 전년도 평가 결과의 활용, 자체부담 정도 등과 관련한 분석 결과가 미흡한 한계점을 안고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 효과 등과 같은 정량적 평가지표가 제외되어 있는 제약이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 에너지절약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효과를 포함한 성과분석을 제안할 수 있다.

References

1. Kang, H. C., Study of green lifestyle implementatio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12
2. Kwon., H. S., In-depth assessment of energy efficiency project,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2
3. Green Energy Family(www.gogef.kr)
4. Kim, D. C., A study on evaluation and development measures about public collaborative project, Sungkonghoe University, 2004
5. Kim, T. Y., A study on improvement and development measures about public collaborative project evaluation and management syste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06
6. Busan Green Consumer Network, Medium briefing of public activity of NGO Korea Consumer Agency 2011, Korea Consumer Agency, 2011
7. Seosan City, Plan information of Energy Movement Forum, 2013
8. Ahn, K. H., A study on project evaluation about public activity of NGO, Ministry of The Interior, 2010
9. Ministry of The Interior, Support planning enforcement notice of about public activity of NGO 2013, 2013.1.3.
10. KEEL, Survey results of on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to Collaborative Energy Saving Projects with NGO, internal data, 2013
11. KEMCO, Evaluation plan about public activity of NGO 2014, 2015
12. KEMCO, Support planning notice of about public activity of NGO 2014, 2015
13. KEMCO, Receipt notification about public activity of NGO 2014, 2015
14. KEMCO, Selected results about public activity of NGO 2015, 2015
15. KEMCO, Selection plan about public activity of NGO, 2015
16. KEMCO, Selection plan Audit plan about public activity of NGO, 2009~2014
17. KEMCO, Evaluation plan about public activity of NGO, 009~2014
18. KEMCO, Receipt about public activity of NGO, 2015
19. KEMCO and Energy Citizenship Coalition, Organization related to internal data, 2013
20. Energy Citizenship Coalition, Project results of about public activity of NGO 2014(total), 2015
21. Energy Citizenship Coalition, guideline about public activity of NGO 2014, 2015
22. Energy Citizenship Coalition, Planning enforcement notice 2014, 2015
23. Energy Citizenship Coalition, Evaluation plan of about public activity of NGO Project, 2014
24. Energy Citizenship Coalition, About Coalition, 2013
2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guideline about public activity of NGO 2013, 2013
26. Cho, S. J., Study of the effects of the energy efficiency APPs on households' electricity consumption savings,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2
27. Cho, C. S., A study on development program to activate about library volunteers,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 2009
28. MOTIE, Trade and Industry White Paper, 1995